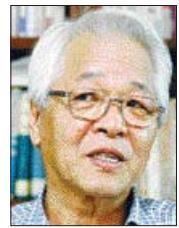


장흥 출신 소설가 이청준씨 폐암 입원 치료 중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장흥 출신 소설가 이청준(69)씨가 최근 병세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폐암 말기인 이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삼성서울병원 암병동에 입원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한 지인은 “기력이 없어서 면회를 많이 받지 않고 조용히 투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 폐암을 선고받은 후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신작 소설을 발표, 지난해 11월에 작품집 ‘그곳을 다시 잊어야겠다’(열림원)를 끝내기도 했다.

## 안젤리나 줄리 이란성 남녀 쌍둥이 출산



할리우드 텁스터 안젤리나 줄리(33·사진)가 12일 오후 8시께(현지시간) 프랑스의 휴양도시 니스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란성 쌍둥이를 순산했다고 현지 신문 니스-마르탱이 13일 보도했다.

줄리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몸무게가 각각 2.27kg, 2.28kg인 남녀 쌍둥이를 낳았으며, 아들은 녹스 레온, 딸은 줄리의 엄마 이름을 따 비비안 마셀리나라고 부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줄리의 분만을 도운 산부인과 의사 미셸 쉬스만은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밝혔다.

줄리는 2005년 영화 ‘미스터 & 미스 스미스’를 계기로 만난 할리우드 텁스터 브래드 피트(44)와 사이에 매너스(6)와 파스(4), 사하라(3) 등 입양 자녀 3명과 친딸 샤일로(1)를 두고 있으며, 이번 출산으로 이들 부부의 자녀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니스-마르탱은 줄리가 낳은 쌍둥이의 첫 사진이 한 미국 신문에 1천1백만달러(약 110억원)에 팔렸으며, 줄리 부부는 이 돈을 인도적인 일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美 여배우 에블린 키예스 타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의 동생 웨런 역을 맡았던 여배우 에블린 키예스(사진)가 자궁암으로 타계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향년 91세.

1916년 텍사스주(州) 포트 아서에서 태어난 키예스는 편모 슬하의 빙곤 가정에서 자라났다. 금발과 타고난 미모로 나이트클럽 등지의 댄서로 일하던 그녀는 17세 때 할리우드로 진출, ‘십계’를 감독한 거장 세실 드밀을 통해 파라마운트사(社)와 7년 계약을 맺고 영화 ‘해적(the Buccaneers)’으로 데뷔에 성공한다.

이후 수차례 단역을 맡은 키예스는 1939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오하라의 동생 웨런의 역을 맡아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 전남농협 장성 북중학교에 도서 기증



김홍주(사진 왼쪽) 농협 전남지역본부 교육지원부장은 최근 장성북중학교를 찾아 학교에 청소년 권장도서 117권을 전달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광주 가톨릭의사회 조국현 명예회장

## “질병 고통받는 외국인노동자 5년째 열린 의료봉사 펼쳐”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것도 없을 겁니다. 더구나 그 곳이 타국이라면 더 심하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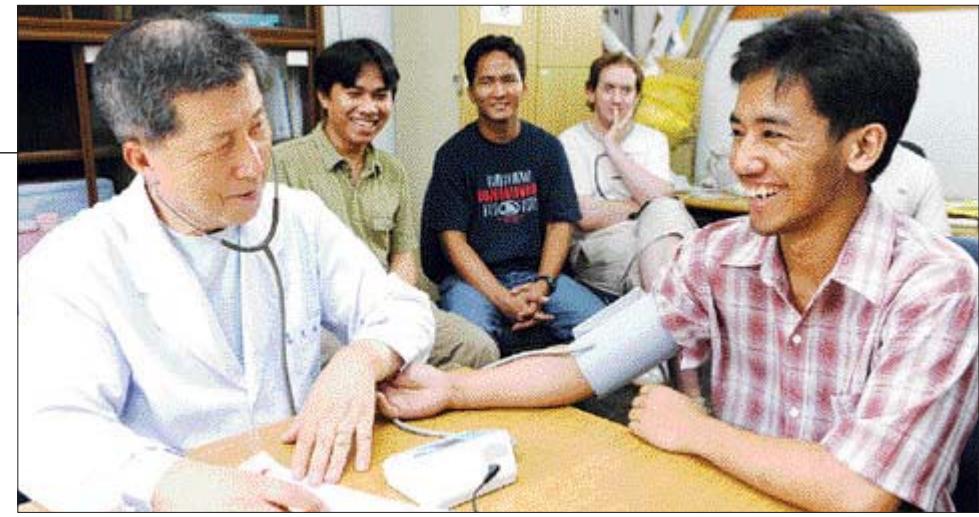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아파도 그냥 참고 만다. 의료비도 없을 뿐 더러 억어 소통도 어려워 선동 병원에 발걸음을 하지 못한다. 그들의 아픔은 5년째 돌보고 있는 이들이 있다. 한국가톨릭의사회 광주지부 의사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조국현(66·광주 조내과의원 원장) 명예회장은 “타국 생활의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병을 키우는 친구들이 많다”며 “어려워 맡고 병원을 찾아달

라고 당부했다.

조 원장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인연을 맺은 것은 5년전이다. 광주가톨릭센터와 호남동성당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식처로 그들이 한국 정착에 필요한 생활 상담과 법률 자문 등 ‘노동 사목’을 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건강이 대부분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고, 가톨릭의사회와 함께 내과·치과·이비인후과 등 의료 지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호남동성당에서는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후 2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미사가 열린다. 가톨릭의사회는 미사가 끝나면 300~40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와 미용봉



광주 가톨릭의사회 조국현(왼쪽) 명예회장이 13일 광주 호남동성당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무료 진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 활동을 펴고 있다. 성당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입원시켜 수술도 하고 치료한다.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교도소, 요양원, 복지관 등을 찾고 있다.

조 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얹어 소통이 안되다보니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아주 심각하다”며 “그 때문인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비만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가 특히 많다”고 덧붙였다.

/박정옥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 동구·서구 최우수상, 북구·완도군 우수상

##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회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주시 동구와 서구가 최우수상을, 광주시 북구와 완도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39개 자치단체가 참여한 이번 대회 ‘공약이행평가’ 부문에서 동구는 공약의 적합성·독창성·참여성·확산 가능성·체감성 등 5개 평가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에도 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동구는 경실련 등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공약이행평가에서도 2년 연속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등 모범적인 공약이행 실천 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또 서구는 24시간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사업(365 민원봉사센터)이 주민 만족도와 대민 기여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같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북구는 공약성과 부문에서 우수 자체로 선정됐다. 북구는 지난 5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

여간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완도군도 ‘수산물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주요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해양생물연구센터 견립 ▲해양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활어종합유동센터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해 수산 경쟁력을 크게 높인점을 인정받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이병철 조선대 법대 교수

## 지속가능발전위원 위원



년 5월 25일까지 다.

부산 출신인 이병철 교수는 서울 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와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 대형 로펌에서 기업 법무 및 행정사건을 주로 담당했다. 지난 2005년 조선대 교수로 임용됐다.

/정상별기자 camus@kwangju.co.kr

안병호 ▲수사과장 하태우 ▲경비교통과장 안병갑 ▲해남경찰서장 박석일 ▲보성경찰서장 김창식 ▲장성경찰서장 한재숙 ▲진도경찰서장 이원민 ▲구례경찰서장 김수현 ▲경무과(교육) 김재규▲ “전준호 ▲” (대기) 이영수사과장 안동준 ▲경비교통과장 김철성 ▲서부경찰서장 백혜웅 ▲광산경찰서장 배용주 ▲전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리 김원국

## 광주 포도원교회 ‘비전센터’ 기공 감사예배

## 광주 총장로타리 클럽 회장 이취임식

## 광주 남부서 ‘방범순찰대 가족 초청 간담회’



광주 포도원교회(담임목사 백주석)는 지난 12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 포도원교회에서 ‘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감사 예배를 가졌다.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 총장로타리클럽(회장 최승호)은 최근 광주시 북구 운암동 그랑시아웨딩타워 5층 그랜드볼룸에서 회장·임원 이취임식을 가졌다.

/광주 총장로타리클럽 제공



광주 남부경찰(서장 윤재문)은 최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전·의경과 가족, 친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범순찰대 가족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1 202-222-628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촉

▲장남기씨 차남 경태군 임두홍  
씨 3녀 미향(39)·현숙(37)·현숙(35)  
씨 월례회=14일(월) 오후 7시 한  
변로 사직공원 건너편 베니스웨딩  
컨벤션 꾼에 그린홀.

## 동창·동문회

▲복성중 12회 동창회(회장 서운  
호) 월례회=14일(월) 오후 7시 한  
변로 사직공원 건너편 베니스웨딩  
컨벤션 꾼에 그린홀.

▲강진 도암 산정초교 2회 동창회  
(회장 김길숙) 산이모=19일(토) 오후 2시 광주 용봉지구 큰바다 해물탕 062-515-3339.

▲조대부고 20회 동창회(회장 임  
성기) 모임=19일(토) 오후 6시 광  
주 백운동 모아산부인과 옆 대나무  
집. 062-671-8453.

## 향우회

▲재광 장흥군 향우회(회장 김후  
식) 월례회=15일(화) 오후 7시 광  
주 농성동 상록회관 4층. 011-611-  
6208.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상담=한  
국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  
애자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문제=한국시민연대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  
애자별 상담=한국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신인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  
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  
1188, 010-9940-1769.

▲오지증후군 치료센터 무료 상담=062-  
942-0204.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제 서

주기, 묘자리 봄자기 등(실버에 한  
함). 062-365-8228.

## 모집

▲인우회 회원 모집=광주지역  
전·의경 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사랑의 배움학교 문해 학급과  
정 자원봉사 교사 및 수강생 모집=  
성인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종합  
검정고시반, 한문반, 광산구 하남 성  
심병원 인근. 062-951-5397, 011-  
9456-6037.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  
문화교育(한글과정), 초등·중  
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8500.  
▲디딤돌 장애인아학 교사·학생  
모집=초·중·고 졸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010-9420-1769.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 모집=꽃꽂이교실(수·  
오전 10시), 노래교실(수·오후 2시),  
댄스스포츠(목·오전 10시), 틈사랑  
(수·오전 9시30분). 062-410-5000.

## 3423-1567.

▲광주FC 축구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운동동 서강고 운동장.  
017-656-3431.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모집=장구, 징, 펑  
파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  
유로우신 분), 악기 후원 받음. 062-  
431-8025, 010-9676-0828.

▲한국웃음요가연구소(소장 김영  
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 양성  
수시 모집=웃음치료사, 웃음요가 무  
료상담, www.hahayoga.co.kr 062-  
381-8254, 011-9374-7482.

▲황실 십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  
쿠션·시계·베개·주차증·방석·액  
자·지갑·핸드폰줄 제작 등 무료 교  
육. 062-512-4000, 062-528-8500.

▲늘 기쁜 지역 이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 모집=초등학생, 방과  
후 숙제 및 학습 지원. 062-511-  
6771.

▲전통문화예술단 굽림 무진농악  
단·은빛국악단 회원 및 강습생 모집=  
풀물반(수·오후 3시), 난타반(목·  
오후 3시), 장구초보반(화·오후 7시

## 30분), 중급반(월·저녁 7시30분).

062-523-0474, 010-2658-0876